

보도시점 : 2023. 5. 18.(목) 11:00 이후(5. 19.(금) 조간) / 배포 : 2023. 5. 18.(목)

윤석열 정부 출범 1년, 국정과제 현장 점검**국제선 운항 1년 간 642% 증가, 완전 정상화 추진**

-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공항 상주기관, 항공업계 등 현장 간담회 개최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5월 19일(금) 오후 어명소 2차관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CIQ 기관(세관·출입국관리·검역), 인천공항공사, 항공사·지상조업사 등 항공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분야별 이행 성과와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이번 방문은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‘항공 정상화’ 추진 성과를 점검을 하는 한편, 공항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에게 철저한 보안검색을 당부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음매장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정부 출범 당시 국제선 운항 횟수는 주 407회 수준('22.4월)에 불과했으나, 지난 6월 국제선 조기 정상화 대책('22.6월)을 수립·추진한 결과, 1년간 국제선 운항 횟수는 642%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또한, 공항버스(서울경기) 운행 편수는 지난 1년간 379% 증편되었고 여름 성수기에 여객들이 불편함 없도록 지속 증편할 계획이다.
- 국제선 회복에 대비하여 조종사 및 승무원, 보안검색, 지상조업 분야 공항 종사자를 선제적으로 충원한 결과 '19년 12월 대비 현재 89%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특히,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의 지상조업 종사자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▲근속근무자 최대 100만원 채용지원금 지원(공사1:업체1), ▲공항버스 심야노선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- 한편, 지난 3월 발표한 ‘내수활성화 대책(3.29)’에 따라 4월 30일부터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어 지역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72시간 스탑오버 프로그램*(Stopover)도 확대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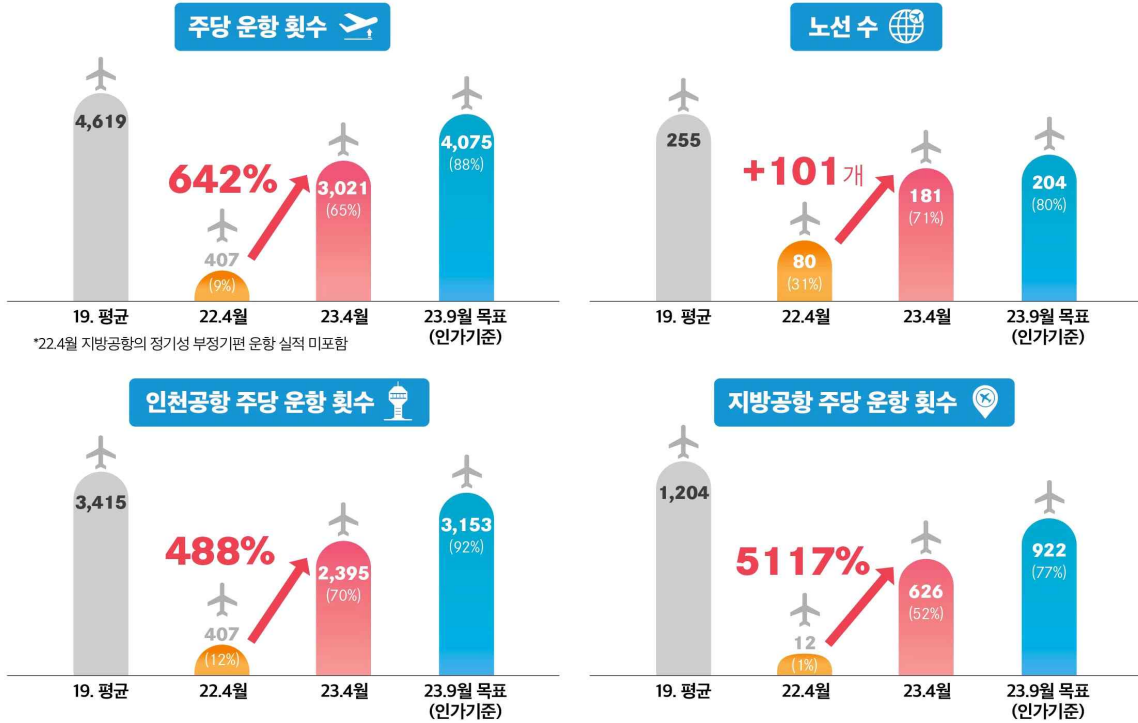
* 서울경기·강원·경북·전북 등 지방연계 주요 관광지 방한체험 상품(1박2일/2박3일, 유료)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홍락	(044-201-4204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한	(044-201-4181)
	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	책임자	과 장	김동현	(044-201-4307)
		담당자	사무관	김남극	(044-201-4225)





1. 국제선 운항횟수·노선 확대 *(')는 '19년 대비 회복률



2. 공항버스·철도 증편 ('19년 대비 운행률)



3. 공항인력 조기 충원 ('19.12 대비 회복률) ('22.4) 63% ▶ ('23.4) 90% ▶ ('23.9 목표) 95%

